

감정을 알았다.



흔들리는 나무

바람이 불면
나도 모르게 흔들린다
내 마음도 나무 같아서
작은 말 한마디에도
왼쪽으로, 오른쪽으로
자꾸만 기울어진다
그래도 괜찮아
흔들리면서도
나는 쓰러지지 않으니까



투명한 마음

내 마음은 물 같아
기쁠 때는 반짝반짝 빛나고
슬플 때는 잔잔하게 퍼진다
근데 가끔
누가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
내 마음에 파문이 생긴다
금세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
계속 흔들리고 있더라

비밀 노트

나만 알고 싶은 비밀을
노트에 적어 두었다
친구랑 싸운 날도,
웃었던 날도 다 담아놨어
누군가 몰래 열어본다면
아마 웃을지도 몰라
근데 나는 내 마음을
이 노트에만 말할 수 있다



오늘은 괜찮아

어제는 울었지만
오늘은 웃고 싶다
하늘이 맑아서
햇살이 내 얼굴을 간질이니까
괜히 웃음이 나와
내 마음도 이렇게
날씨처럼 바뀌는 걸까
어쩌면 오늘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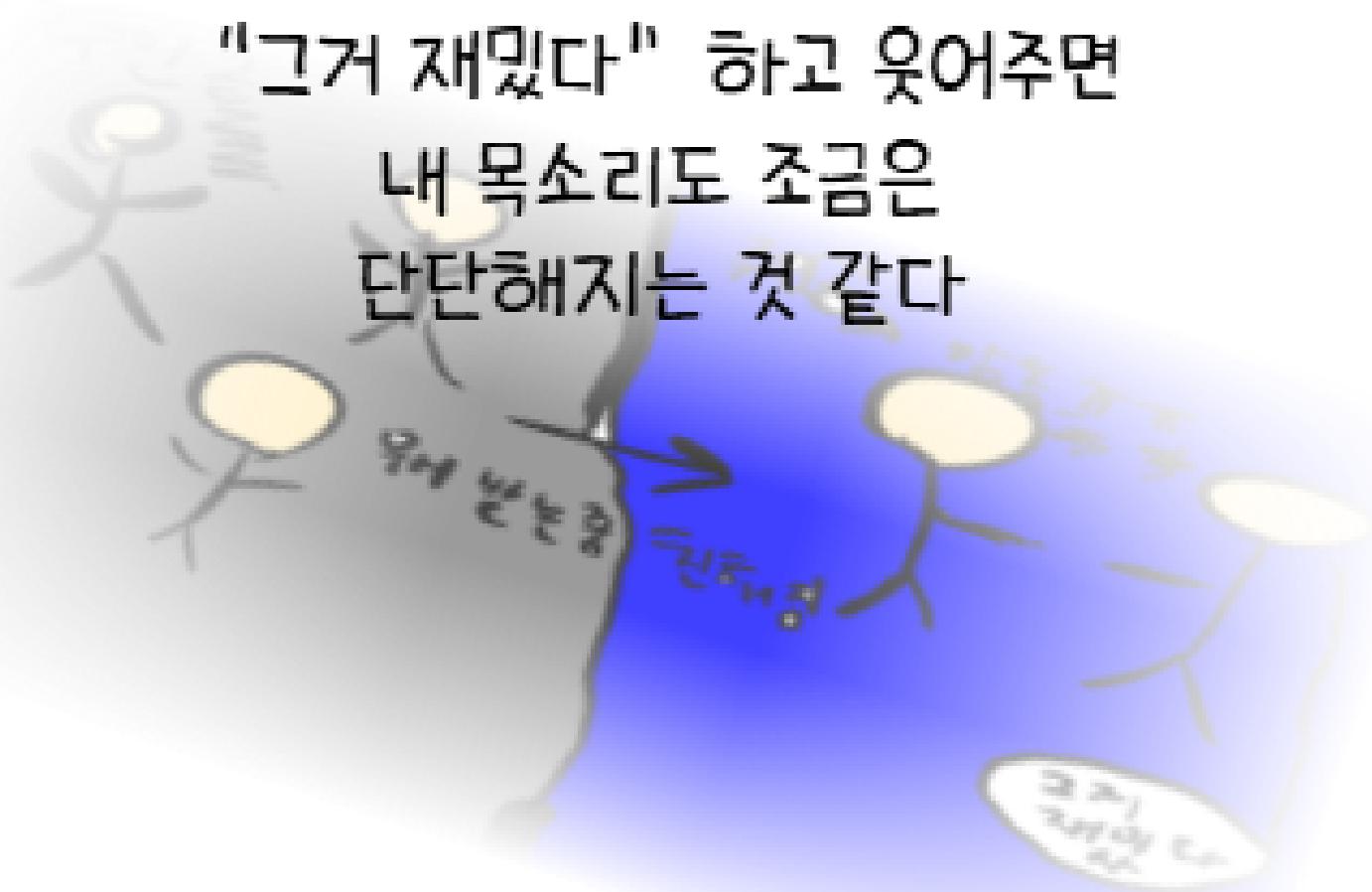
나를 아는 건 나뿐

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
나는 잘 웃는다고 생각하겠지
근데 진짜 나는
조금 다를 때가 있다
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
괜히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
그래도 괜찮아
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건
다른 누구도 아닌 나니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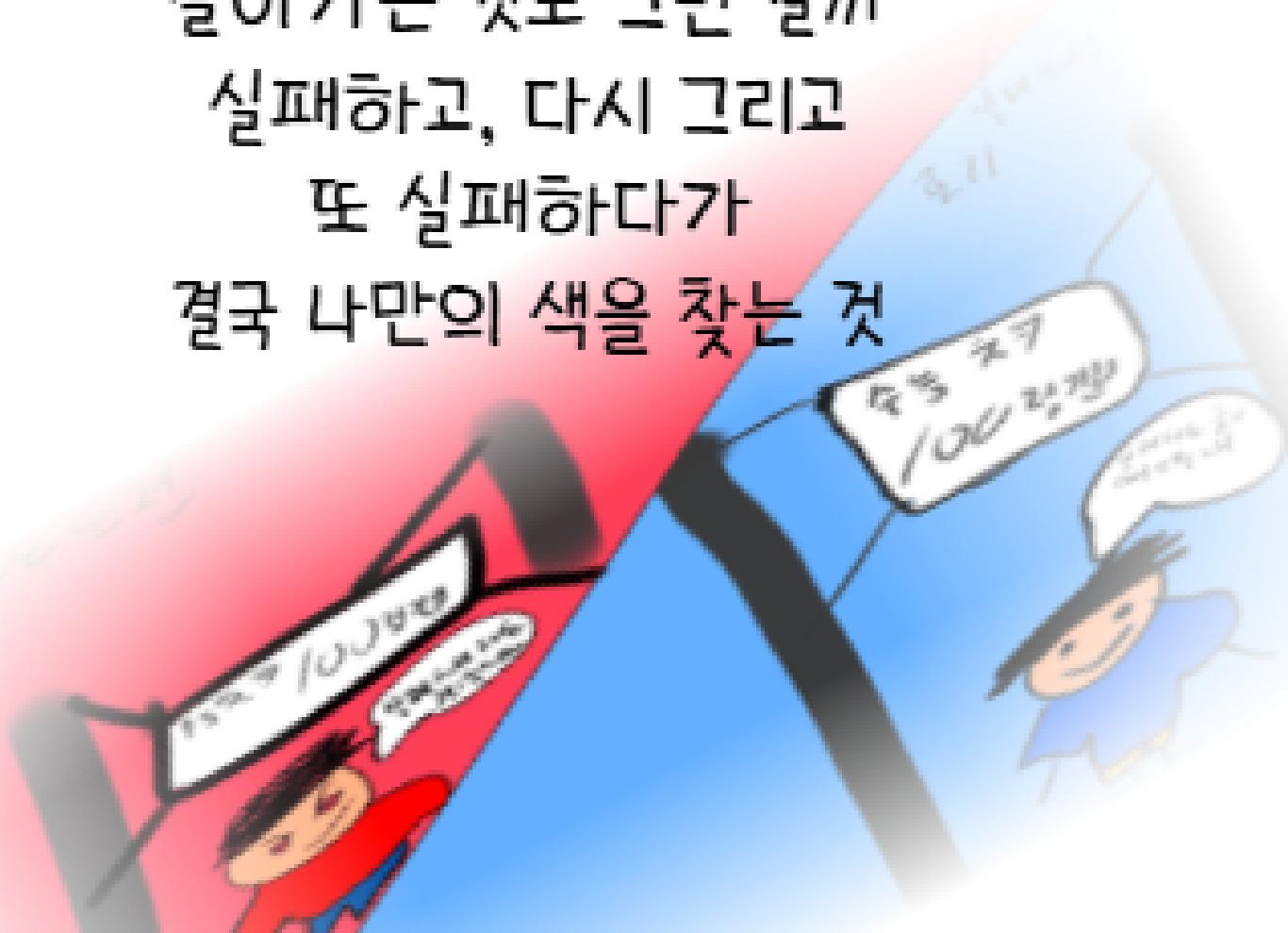
목소리

친구들 속에서
내 목소리가 묻힐 때가 있다
내가 말을 해도
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다
근데 가끔 누군가
“그거 재밌다” 하고 웃어주면
내 목소리도 조금은
단단해지는 것 같다



다섯 번째 시도

그림을 네 번이나 지웠다
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
다섯 번째에서야
내가 그리고 싶었던 모양을 찾았다
살아가는 것도 그런 걸까
실패하고, 다시 그리고
또 실패하다가
결국 나만의 색을 찾는 것



나만의 시간

사람들이 시끄러운 교실에서
나 혼자만의 세계를 만든다
이어폰을 꽂고
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
그 노래 속에서는
누구도 날 방해하지 못한다
짧은 시간일지라도
그때만큼은
내가 나답게 숨 쉬고 있는 것 같다

아직은 나를 믿고 싶다
때로는 잘할 수 있을까
걱정이 밀려온다
모르는 문제, 어려운 숙제,
눈앞에 쌓인 것들이 나를 막는다
근데 한번만 더 해보면
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
아직은 작고 서툴지만
나는 나를 믿어보려고 한다

숨겨진 나

모두가 나를 안다고 말한다
웃음이 많고, 착한 아이라고
하지만 아무도 모른다
내 안에 웅크린 그림자를
나도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
모른 척 웃어주는 나와
속으로 울고 있는 나
둘 다 진짜 나일까



문을 닫았다

"괜찮아?" 누군가 물어봤지만
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했다

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

내 마음을 들키는 게 싫었다
내 방은 비밀이 많은 섬 같아서

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

가끔은 나조차 들어가기 싫은
낯선 섬 같기도 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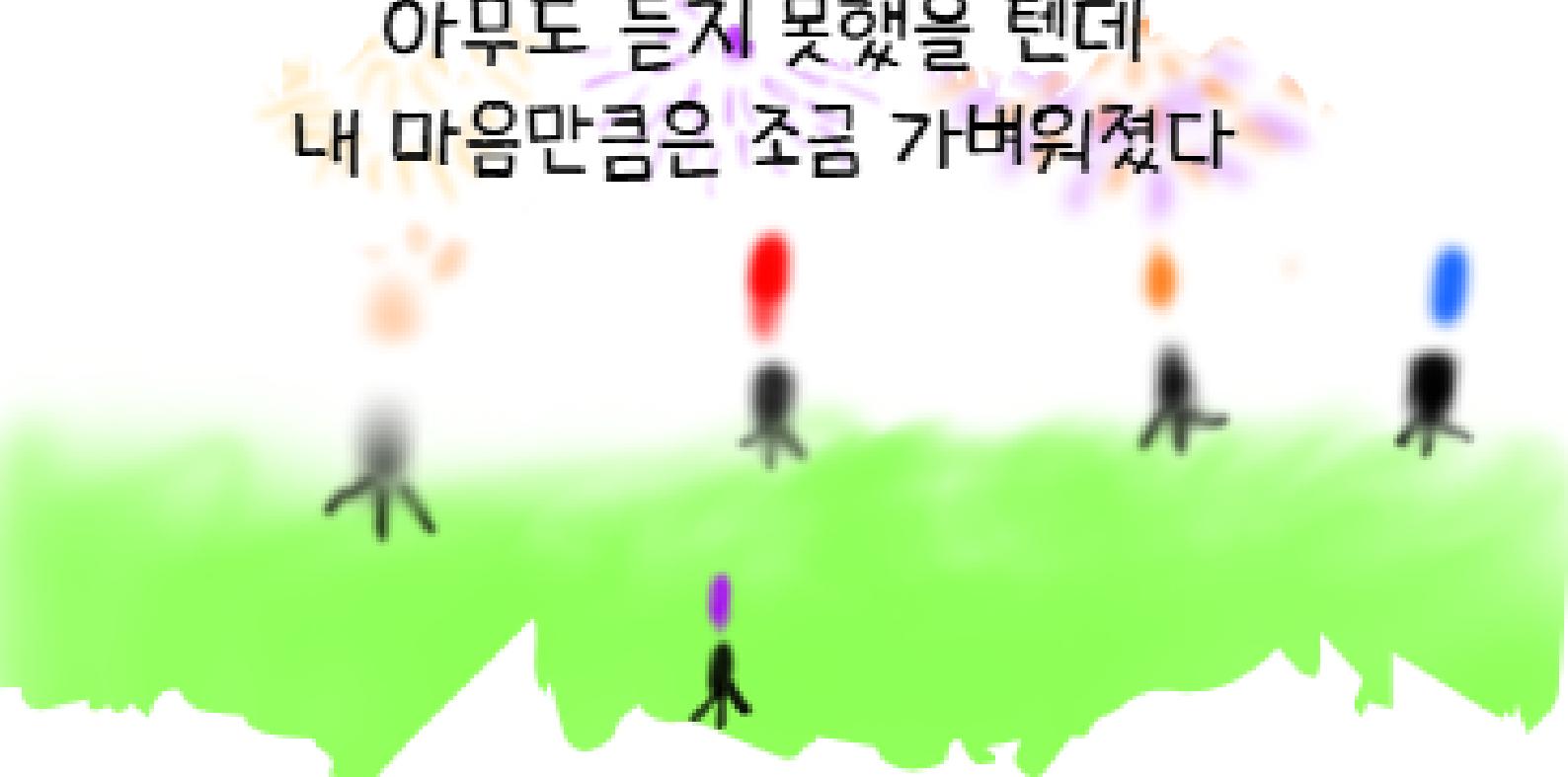


나는 아직 모른다

가끔 나 자신이 낯설다
뭐가 옳은지,
왜 이렇게 답답한지
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
작은 실수에도
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
누군가의 한마디에
또 쉽게 웃는 나를 보면
나는 아직 모른다,
진짜 나를

소리치고 싶다

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
착각했나 보다
내 안의 소리가 너무 커서
조금은 터뜨리고 싶었다
창문을 열고 바람에 대고
"나도 힘들어!" 라고 외쳤다
아무도 듣지 못했을 텐데
내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다



별빛에게 묻는다

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
작은 별 하나에게 물었다
"나도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?"
별은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
괜찮았다
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다 들어준 것 같아서
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





사라진 어제

어제까지 친했던 친구가
오늘은 나를 보지 않는다
내가 뭘 잘못했는지
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
가끔은 말 한마디가
멀고 깊은 강을 만든다
그래서 나는 오늘도
말을 삼킨 채 멀어졌다

울고 싶을 때

울고 싶을 때가 있다
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난다
속은 답답한데 겉은 멀쩡하다
그러다 노래를 듣다가
갑자기 눈물이 터졌다
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가사 한 줄이
나를 무너뜨렸다



기복속

내일은
내일은

내일의 나에게

오늘도 엉망이었다

친구랑 싸우고, 숙제는 미뤘다

엄마한테 혼나고,

혼자 이불 속에서 반성했다

근데 내일의 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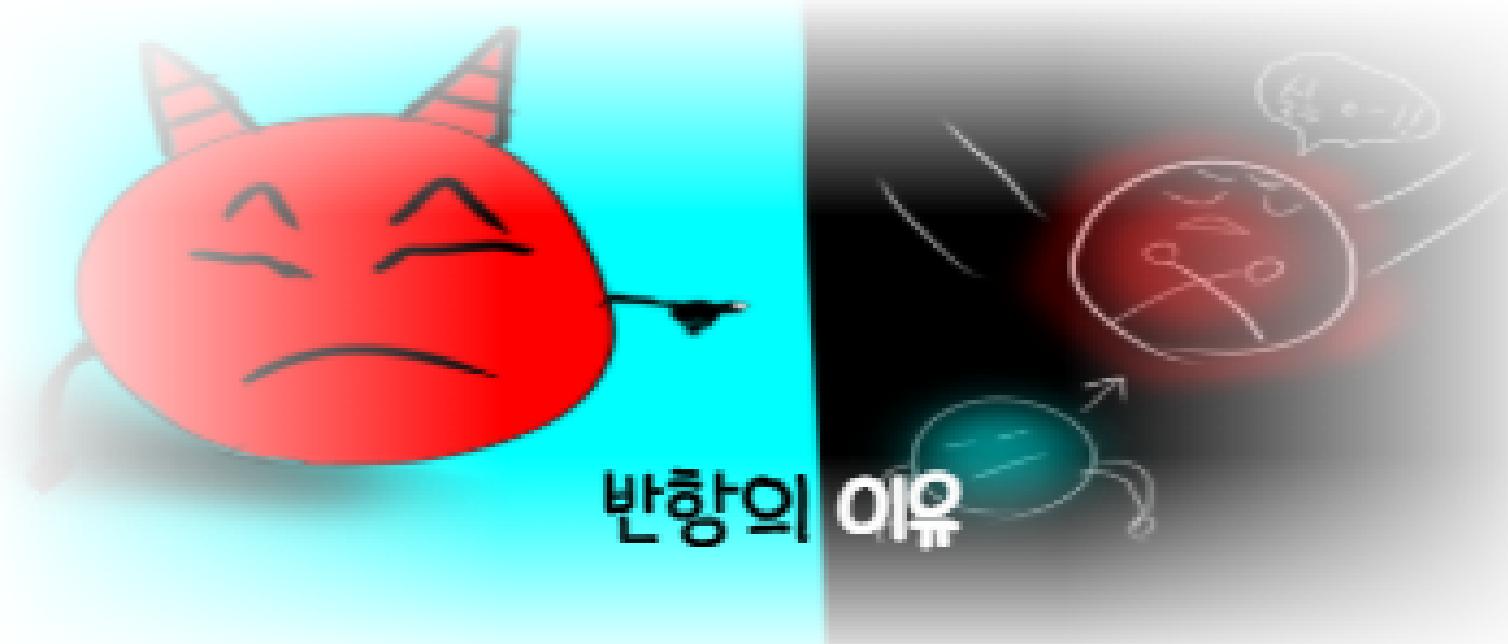
조금 다르면 좋겠다

어쩌면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

내일의 나에게,

작게 안부를 묻는다

"괜찮아?"



반향의 이유

"왜 그렇게 말 안 듣니?"

어른들은 자꾸 묻는다

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

사실 나도 이유를 모른다

누군가 시키는 게 싫어서,

나도 모르게 더 큰 소리로

"싫어!" 라고 외치고 있었다

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

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싶어서

반향하는 걸지도 모른다

나를 잃을까 봐

친구들 속에서 웃고 있는데
웃고 있는 내가 낯설었다
내가 원하지 않는 농담에 웃는 나
괜찮은 척하는 나
가끔은 무서워진다
나를 잃어버릴까 봐
사람들 속에서 섞여 사라질까 봐
그래서 혼자가 되고 싶었다



